



이름:

WEEK 16

Apr 14

신명기 25장

본장은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3-16절에서는, 정직한 계산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두 개의 저울 추나 두 개의 되를 쓰지 말고 공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두 종류의 저울추나 되를 두는 이유는 구매할 때는 정량보다 많이 받고, 판매할 때는 정량보다 적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부당하고 부정직한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풍성한 복을 오랫동안 누리는 방법은 공정하고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영역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신명기 26장

본장에서 모세는 첫 열매의 봉헌규례(1-11절)와, 셋째 해에 드리는 십일조 규례(12-15절)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합니다.

1) 하나님께 드리는 광주리에는 무엇을 담나요?

2) 셋째 해에 드리는 십일조는 누구에게 나누었나요?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그런 감사의 예배와 표현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Apr 15

신명기 27장

본장 1-1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율법의 말씀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공문서를 보존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모세의 십계명 돌판도 그렇고, 왜 하나님은 말씀을 돌에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말씀이 입으로 전해지면 가감이 될 가능성이 있고, 나무에 기록하면 썩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본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따르는 축복(1-14절)과, 불순종할 때 따르는 저주(14-68절)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복을 받는 일과 저주를 받는 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2절, 15절)

Apr 16

신명기 29장

모세는 광야 40년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과거를 회상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옷이 낡지 않았으며 신이 헤어지지 않았고, 하늘의 만나를 먹었으며, 반석을 쳐서 나오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서 멸함으로써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살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 봅시다. 그 중 생각나는 감사 한 가지를 적어 보세요.

신명기 30장

본장은 모세가 모압평지에서 행한 설교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나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에 있으며, 내 ()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예수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 말씀을 즐거이 지키는 일이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Apr 17

신명기 31장

본장에서 120세가 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지도자는 바뀌어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3,8절).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온 모세가 요단을 함께 건너지 못한다는 사실은 백성들에게 불안감을 주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일은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6절),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7절) 동일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담대함은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특히 여호수아에게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본장에서 모세는 12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교훈을 노래로 만들어 백성으로 하여금 부르게 합니다. 이 노래를 마친 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최후의 권면을 합니다. 46절을 써 보세요.

Apr 18

신명기 33장

본장에서 모세 자신의 최후를 맞이 위해 느보산에 오르기 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축복기도를 하며 자신의 사역을 마칩니다.

축복기도를 마친 후, 모세는 다음 2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 1) 여수론이여, ()!
: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 2) 이스라엘이여, ()!
: 여호와와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본장에서 모세는 120세에 죽음을 맞이 전,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셨습니다. 모세는 33:26절에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34:10절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모세의 삶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믿음의 여정을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은 어떻게 평가될지 생각해 보세요.

Apr 19

여호수아 1장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여 정착하는 모든 과정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 1) 믿음(6,7,9절) : 강하고, ()!
- 2) 말씀(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말씀입니다. 저희 삶에 펼쳐지는 일의 현상과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범사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2장

이방인이며 기생이었던 라합은, 여리고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을 고백한다. 히브리서 11:31절에는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31절을 써 보세요.)